

교구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 교구장 강론 (요약)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교구 100주년을 경축하며 장엄미사를 봉헌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11년 4월 8일 대구대목구 설정으로 시작된 우리 교구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볼 때, 하느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처음 이 나라에 전해졌을 때, 조선의 천주교회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식물의 씨앗이 바람에 날리어 세상 곳곳으로 뿌려지듯이, 그 당시 신자들은 박해라는 바람을 타고 경상도 지방에까지 날아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00년 전에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대구대목구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신앙 선조들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교선열들, 그 신앙을 가꾸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열정을 쏟으신 역대 교구장님들과 사목자들,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오롯이 사목자들을 도와 온 수많은 수도자와 평신도들의 숨결을 느끼며,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출발하고자 합니다. ‘새 시대 새 복음화’를 위하여 더 성숙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미래의 교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꾸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고민합니다.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지, 미래의 교구를 어디로 방향지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말씀(루카 10, 25-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10, 37)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구가 그동안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펼쳐왔던 영성운동과 생명사랑나눔운동도 결국 사랑하면서 살라는 운동인 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번 100주년 경축대회의 주제성구입니다. 오늘 교구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참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교구민 여러분 모두가 지난 100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100년을 향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빕니다.

“루르드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성녀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조환길 타대오



교구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 중계방송 안내

생 방 송 : 5월 15일(일) 11:00~13:30 (평화방송TV, 대구평화방송 FM)
녹화방송 : 5월 15일(일) 21:00, 5월 19일(목) 22:15 (평화방송 TV)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

임종필 프란치스코 신부

교구 성소 및 신학생복음화 담당



이 말라야의 많은 산봉우리 중에 출라체(해발 6,440미터)라는 정상이 있습니다. 2005년 산악인 박정현은 후배 최강식과 함께 출라체 정상을 향해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예기치 않은 난관이 많았지만 그들은 잘 이겨내고 사흘 만에 정상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산 도중에 후배 최강식이 해발 5,300미터 지점에서 빙하에 균열이 생겨 갈라진 틈새에 빠져 25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강식은 두 다리가 부러지고 한쪽 발목뼈는 자리를 이탈하여 떨어졌었습니다. 박정현 역시 갈비뼈가 부러지고 여기저기 찢긴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뿐만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끊어버리자...'는 감동이 박정현의 마음속에서 요동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자고 후배를 버릴 순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려가야 할 길이 천 길이나 남았어도 끝내 후배와 함께 가야 했습니다. 그는 후배를 부축하고, 안고, 업고서 빙벽을 타고 암벽을 넘어 결국 살아 돌아왔습니다. 무사귀환을 허락하지 않는 산에 맞서 생사를 넘나드는 9일간의 사투였습니다. 그는 결국 손가락 여덟 개와 발가락 두 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제와 수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와 수도자로 부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교회가 제정하였습니다. 흔탁한 오늘날의 세상은 더욱 더 착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

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착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10,11),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1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자가 착한 목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양들을 지킵니다. 양들이 위험할 때 도망가는 목자는 삯꾼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남이 죽어가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봐도 당장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직은 자신없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Bonhoeffer)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죽어야 참으로 사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모든 이들이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못생김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소주일에 주님의 은총을 청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입당성가

55 착하신 목자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3 면병과 포도주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파견성가

56 목자를 따라서

영성의 향기

:: 친교에 이바지하려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필수적인 일은 친교입
니다. 이 친교를 위해서는 하느님의 힘, 즉 성
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에 협조하는 우
리들의 노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
다. 그 노력 중 한 가지는 친교의 공동체 안에서 정직함이 우선
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바른 말이나 진리를 말해 주는데 별로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예페소서(4,15)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바른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라고 잠언(24,26)에서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 또한 어
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
어야 하고 우리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라고 했습니
다.(갈라6,1) 우리 교회 안의 여러 단체들 안에 얼마나 피상적
인 친교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모두들 갈등을 두려워하여 거
짓 평화로 그럴 듯하게 포장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산상설교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행복하고 그들은 하
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 이라고 하십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며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친교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사람
들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두 마리 늑대



어느 날 저녁, 늑은 체로키 인디언이 손자에게 사람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
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운단다. 하나
는 ‘불행’이라는 늑대야. 두려움, 걱정, 분노, 시기, 슬픔, 자기연민, 원한, 열등감의 늑대
지. 다른 하나는 ‘행복’이라는 늑대야. 기쁨, 사랑, 희망, 평온, 친절, 관대함, 진실, 연민
의 늑대란다.” 아이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겨요?” 늑은 체
로키 인디언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기지.”

- 율겨온 글입니다 -

모임 / 행사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5.23(월) 20:30, 요안나 미용학원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하느님의 종 신 보니파시오와

김 베네딕도와 동료순교자 38위

시복시성 기원음악회

일시: 5.28(토)19: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당

파스카청년성서모임 35주년 돌잔치

일시: 6.5(일) 10:00 미사
장소: 교구청내 가톨릭교육원 및 운동장
문의: 255-1582 (화~토 14:00~22:00)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 ME주말

대구288차: 6.10(금)19:00~12(일)18: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473-5712
사랑의 대화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소 / 파정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5.18(수) 13:00~17:00, 지도신부: 강요셉
문의: 삼덕성당, 422-6691

프란치스코 영성특강 및 미사

일시: 5.21(매일 셋째 토) 14:00
장소: 월배수도원
대상: 53세 이하 가톨릭 신자
문의: 632-9800 / (011)9594-9441

섭리기도모임(미혼여성)

일시: 5.22(일) 14:00, 성당동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5777-3413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5.22(매일 넷째 주 일) 14:00~17:00
장소: 길음동 본원
문의: 홍루피나 수녀, (010)4907-2754

군중후원회 일일피정

일시: 5.23(월) 10:00~17:00, 교구청내 대강당
장사: 수원교구 성필립보생태마을 황창연 신부
주제: 행복한 신앙생활, 회비(중식): 3천원
구입차: 후원회사무실, 본당지회장, 당일현장판매
문의: 군중후원회, 256-0815

제28회 전국 가톨릭공무원 피정

일시: 5.28(토) 9:00~16:40, 엑스코 5층
참석: 가톨릭 공무원 및 가족, 신심단체
주최: 대구광역시 가톨릭공무원신우회
주관: 천주교대구대교구(사목국)
문의: (010)4138-7982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 · 성악전공반 모집

문의: 255-4847
지성인을 위한 신앙 강좌
일시: 5.28(토) 10:00 ~ 12:30, 마감 25일(수)
장소: 남산동 대진학원 대강당(참가비 5천원, 점심포함)
주제: 주일과 우리의 신앙(김정우 사도요한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6월강좌: 성경, 그림으로 읽다(송창현 마ikel 신부)

이곡성당 청년성서 나누기 반

창세기 나누기 반(매주 화) 20:00
요한복음서 나누기 반(격주 수) 20:00
문의: 창세기 (010)6566-3730
요한복음서 (010)9372-6959

선교훈련 시그마 코스 17기

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개인 또는 단체)
일시: 6.10(금)~12(일), 회비: 16만원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 집
문의: (031)985-2835, 미래사목연구소
제38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초 · 중 · 고: 7.23(토)~8.15(월)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 · 일반: 6.26(일)~8.7(일)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직원 채용

산격성당 사무원 채용

제출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격: 35세미만 미혼(여), 컴퓨터 사용가능한자
문의: 943-9030 / (010)3057-7698

안내

해외선교후원회 5월 정기미사 변경안내

일시: 5.19(셋째 주 목요일) 14:00, 성모당
주례: 볼리비아주교님 두분과
볼리비아에서 사목하셨던 사제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가나강좌 (1인당2만원, 당일접수)

일시: 5.22(일) 10:00~17:00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한상철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6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한티 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5월 16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포항지역 군중후원회미사	5월 16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5월 17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대거리⇒ 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안경원

리 네 드

T. 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프란체스카)

송월타올

* 인쇄대료 *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가톨릭문화관 1층

28년 전통 성가정의 만남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558-3003, 644-4007
비산대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정실(마리아)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 내거리(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출구)

원장 채 희 갑 (바오로)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752-9797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 선일외과의원 ♣

원장, 전문의 : 배선익(사도요한)
지하철 2호선 범어역 3번출구, 수성못방향 → 300m

TEL : 745-6633~4



매일IT가전

김홍은(요셉) T: 604-3300
유통단지 전자관 1층 239호

생활가전, TV, 선풍기, 에어컨, 냉방기
안마의자, 찜질기, 안마기, 온열매트